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

성가롤로병원

www.stcarollo.or.kr

NEWS

2026년 10월

제338호 | 월간

등록번호 순천 라 00007
발행인 박명옥 편집인 홍보실
발행처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광로221
대표전화 061-720-2000
Fax 061-720-6000
홍보팀 061-720-6477-8
인쇄 도서출판 범존

성가롤로 비전 2030

신뢰와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가롤로병원

1.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한다.
2.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3.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다.
4.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페 1, 5)

핵심가치

1. 생명존중
2. 전인진료
3. 역량강화
4. 소통과 화합
5. 사랑과 섬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지역 주민 심뇌혈관질환·치매 예방 위해 손잡아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치매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관련 교육·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및 캠페인 추진 ■전문 자원 및 정보·자료 공유 ■지역사회 보건·복지 증진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장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내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안전망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5》
- 2) 질병관리청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보고서》

초고령화 지역인 전남은 65세 이상 노인 추정 치매 유병률이 약 10.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¹⁾ 또한 고령층에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발생률은 10만 명당 각각 46.9건, 123.7건에 이르러 전국 평균(37.1건, 113.2건)보다 확연히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²⁾ 노인성·중증 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조장현)와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강일)는 9월 10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중증 질환의 통합적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긴밀한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가 광주광역치매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9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아트홀에서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치매 관리의 중요성과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명옥 병원장을 비롯해 나주시 강상구 부시장,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강일 센터장, 광주광역치매센터 신일선 센터장 및 치매 관리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치매극복 유공자 포상 및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참석자 전원이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피켓을 흔드는 극복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부대행사로 수상작 전시회, 체험·홍보 부스, 즉석 포토부스 등도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박명옥 병원장은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위탁기관으로서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뇌졸중집중치료실·심혈관중환자실 축복식 거행

우리 병원은 9월 17일, 새로 이전 개소한 뇌졸중집중치료실과 심혈관중환자실의 축복식을 거행했다. 하희명 하이매 신부 집전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100명이 참석해 환자들의 쾌유와 의료진의 헌신을 위해 기도했다.

지난 9월 1일 확장 이전한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은 음압·양압 격리실을 포함한 총 6개 병상으로 운영되며, 급성기 뇌졸중 및 뇌혈관 중재술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전 병상 환자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심혈관중환자실은 9월 15일에 이전을 완료했으며, 마찬가지로 음압·양압 격리실 1개 병상과 응급 전용 병상 2개를 포함해 총 10개의 병상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항균 처리와 헤파필터 기반의 공기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기존 심혈관중환자실이 있던 공간은 심뇌혈관조영기를 도입하여 뇌혈관 전용 시술실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행성 감염병 위기 대응 도상 훈련 실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한 '2026년 유행성 감염병 위기 대응 도상 훈련'을 9월 11일 별관 성심홀에서 실시했다. 훈련에 앞서 감염관리실 강현욱 실장이 '에볼라바이러스병 개요 및 현황'을, 권역응급의료센터 김재혁 센터장이 '전염병 인지와 초기 대응'을 주제로 강의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공유했다. 이어 각 부서장과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직원 등 총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상황을 가정해 감염관리반·환자진료반·진료지원반·행정지원반별 대응 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의심 환자의 조기 인지와 보고, 격리 및 환자 관리, 검체 운반, 접촉자 관리, 환경 소독 및 폐기물 처리 등 실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부서별 역할과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박명옥 병원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부서 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행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감염관리팀 이유라 간호사



환자·보호자·직원이 함께하는 환자안전 주간행사 개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9월 17일)을 맞아 환자, 보호자,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다 같이, 더 가치'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WHO가 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는 '비감염성 질환(만성질환)을 위한 안전한 보건의료'다. 이에 우리 병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 보호자 및 의료진의 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터 게시 및 홍보 활동을 펼치며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환자안전 초성퀴즈', '미션! 찾아줘 환자확인 오류', '보여줘 환자확인 방법' 등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며 환자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환자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나의 얼굴 그리기'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즐겁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우리 병원은 이번 행사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까지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환자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질향상팀 김혜원 주임간호사



전문의 초대석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급성심근경색증의 증상과 대처법



예방관리센터
박경수 센터장
약력
전남대학교 의학과 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취득
전남대학교병원 인턴 수련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레지던트 수련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목포중앙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센터장
전남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현재 성가롤로병원 예방관리센터 센터장
전문분야: 역학, 보건관리

여러 장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합산하는 암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예고 없이 찾아와 단 몇 시간 만에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식과 빠른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이 비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심장의 생명선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혈액을 펌프질하여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 강력한 엔진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려면 심장 근육 자체도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심장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혈관은 세 개의 가지로 되어 있으며, 심장 주위를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통증이 나타나는 '경고' 단계인 협심증이 발생하고,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증이 됩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심장 근육에 피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되고, 공급이 끊긴 부위의 근육은 그 즉시 죽기 시작합니다. 한번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 비가역적 손상이기에, 완전 막힘은 곧 즉각적인 생명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2. 혈관이 막힌 후의 심근 변화

혈관이 막히는 근본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에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으로 인해 혈관 벽에 상처가 생기면,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점차 좁아집니다. 좁아진 부위에 면역세포, 혈소판, 칼슘 등이 더 붙어 단단한 혈전(피떡)이 되어 혈관을 완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혈관이 막힌 순간부터 심장 근육이 죽는 과사가 시작됩니다.

완전히 막힌 시간에 따른 심근 과사율은

0~30분: 가역적 상태. 이때 혈관을 뚫으면 심장 근육을 100% 살릴 수 있음.

3시간 경과: 심근 영역의 50~60% 과사.

6시간 경과: 심근 영역의 70~80% 과사.

12시간 경과: 심근 100% 과사. 이후의 재개통은 심장 근육을 구하는 효과가 미미함. 총 허혈 시간이 30분 지연될 때마다, 1년 후 사망 위험은 7.5%씩 증가합니다. 12시간 이후의 처치는 12시간 이내의 처치보다 30일 이내 사망률과 심부전 발생률이 약 2배 높게 관찰됩니다.

3. 죽을 것 같은 통증

심근경색증의 통증은 단순히 '좀 아프다'는 수준을 넘어 '죽을 것 같은 압도적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통증의 양상: 가슴을 쥐어짜는 듯하거나,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느낌, 혹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지속 시간: 안정형 협심증은 휴식을 취하면 대개 10분 이내에 사라지지만, 심근경색증은 30분 이상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며 휴식을 취해도 전혀 완화되지 않습니다.

방사통 및 동반 증상: 통증이 가슴에 머물지 않고 턱, 목, 등, 왼쪽 팔이나 어깨로 뻗어 나갑니다. 식은땀, 구

토, 현기증,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당뇨병 환자는 이러한 전형적인 통증 없이 단순히 기운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으로 시작하여 호흡곤란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증상'을 방치하는 것이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은 주된 이유입니다. 평소와 다른 작은 이상 징후, 특히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4. 막힌 혈관을 뚫는 관상동맥중재술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가느다란 관을 심장 혈관까지 넣어 풍선으로 좁아진 부위를 넓히고, 특수 금속 그물망인 스텐트를 삽입하여 혈관을 지탱하는 시술을 관상동맥중재술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중재술은 약물 치료보다 훨씬 신속하고 확실하게 혈류를 복구합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스텐트 삽입 후 재발률이 5% 이내로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시술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5. 골든타임과 생존율

심근경색증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변수는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증상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전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수록 심장 기능을 온전히 보존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반드시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19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닙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심전도를 측정하고 정보를 병원에 전달하는 순간, 구급차는 '달리는 응급실'이 됩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응급 시술(PCI)이 가능한 전문 병원으로 즉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내의 처치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퇴원 후 정상적인 일상 복귀와 심부전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0분 이상 가슴 통증이 지속된다면 119에 즉시 전화하여 24시간 관상동맥중재술(PCI)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즉시 이동하십시오.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거나 가족을 기다리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119 이용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비상용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있다면 혀 밑에 넣어 사용하시되, 혀 밑에서 톡 쏘거나 화끈한 맛이 나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성가롤로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365일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빠른 결정이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급성심근경색, 망설임이 심장을 멈춥니다! (지금 바로 119를 부르세요)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죽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의심 증상: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가슴 통증
30분 이상 쥐어짜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휴식 중에도 계속됩니다.



전신으로 퍼지는
연관 통증과 이상 징후
식은땀, 구토, 호흡곤란과 함께 흉골이
뚫, 욕, 왼쪽 어깨나 팔로 번집니다.

비전형적인 증상 주의
(노인 및 당뇨 환자)
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얻지 않거나
소화불량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법: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즉시 119 전화
119는 진단과 치료가 즉시 가능한 최적의 병원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합니다.



질병의 시계를 멈추는 골든타임
증상 발현 후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도착해야
심근과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직접 운전하거나 찰는 것은 금물
자가용 이용은 이송 지체와 갑작스러운 사고의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하세요.





긴장 완화제

효능 · 효과

긴장 완화제는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 불안 상황에서 치료나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항불안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여 불안증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완화한다.

종류

1. 항불안제

가.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의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로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 원내 약: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아티반(lorazepam), 데파스(etizolam), 클로나제팜

나. 항히스타민제 중 하나인 히드록시진은 진정 작용을 나타내므로 불안, 긴장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 원내 약: 아디팜, 두드리진시럽

다. 부스피론 성분은 벤조다이아제핀 성분과 달리 의존성이나 중독 우려가 없으나, 반감기가 짧아 1일 3회 투여해야 하고 항불안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고 최소 일주일 이상 복용해야 나타난다.

- 원내 약: 부스파

2. 프로프라놀롤

가.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여 심근 수축력과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약물로, 떨림,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식은땀 등 긴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일시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나. 불안 상황 유발 30-60분 전에 10-20mg을 투여하며, 습관적 복용은 부작용 우려가 있다.

- 원내 약: 인데놀

3. 우황청심원

가. 우황, 사향을 비롯한 30종 이상의 생약으로 만들어진 약물로 급격한



혈압 상승이나 불안한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실조증에 사용된다.

나. 보통 긴장 완화 목적을 위해서는 30분-1시간 전에 복용하며, 단기간 일시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 사용된다.

4. 천왕보심단

가. 14가지 생약으로 만들어지며,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 강하, 신경 안정 등의 효과를 가지는데 심장의 불필요한 열을 끄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초조, 두근거림, 불면, 신경쇠약 등의 증상을 개선한다.

나. 보통 1일 1회 복용하고 1회 복용보다 일주일 이상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작용

1. 항불안제

가. 벤조다이제핀계 약물: 졸음, 기억력 감퇴, 어지러움, 두통, 구강 건조 등

나. 부스피론: 현기증, 두통, 졸음, 착란, 비정상적인 꿈

다. 히드록시진: 졸음, 두통, 진정, 피로, 입 마름, 빈맥, 변비 등

2. 프로프라놀롤

서맥,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졸음, 불면, 권태, 변비, 설사, 기관지 경련, 피로감, 근육통, 저혈당 등

3. 우황청심원

약국에서 판매되는 한약제제의 경우, 식욕부진, 위부 불쾌감, 설사, 발진/발적, 두드러기, 가려움, 무력감, 경련, 두통, 부종 등

4. 천왕보심단

약국에서 판매되는 한약제제의 경우, 발진, 두드러기, 식욕부진, 복통, 위부 불쾌감, 구역, 구토, 설사 등

출처: 약학정보원 | 약제팀 신유리 약사 | 사진: 제미나이

신임 진료과장 소개



외과 신상훈 과장

전문분야
간담체, 복강경수술, 일반외과질환, 로봇 수술

약력
전남대학교병원 레지던트 수련
전남대학교병원 간담체외과 전임의
화순전남대병원 간담체외과 임상조교수
간담체분과 세부 전문의



건강증진센터 김근호 과장

전문분야
영상의학

약력
원광대학교 의학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인턴 수련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레지던트 수련
여수한국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순천중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환자안전관리 ‘우리 부서가 최고’

정확한 환자 확인을 포함하여 환자안전기준을 가장 잘 준수하고, 위해사건 이상의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3개 부서를 선정하여 2026년도 3분기 환자안전관리 우수 부서 표창을 수여하였다.

[소감문]

3회 연속 환자안전관리 우수 부서로 선정되어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부서원 모두가 환자안전을 위해 함께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하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심혈관중환자실 이현숙 수간호사

‘오늘 하루도 무사히’ 늘 출근길에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환자 중심의 병동, 안전사고 없는 병동을 위해 종종걸음으로 병실을 순회하고 자주 환자를 들여다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환자안전 최우수 부서가 되어보고 싶다는 욕심을 살짝 부려봅니다. 3A 병동 파이팅!! - 3A 병동 조미라 수간호사

찰나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의료현장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서로에게 한마디 더 물어보고 작은 실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준 부서원들과 같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상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소한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철저히 기본을 지키며, 환자분들이 가장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소화기센터를 만들기 위해 늘 앞장서겠습니다. - 소화기센터 박수미 수간호사



심혈관중환자실



3A 병동



소화기센터

현장 중심의 환자안전 강화, 리더십 워크라운드 실시

환자안전주간을 맞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9월 16일 실시했다.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경영진이 실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안전에 관한 위험요소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소통 활동이다. 이번 워크라운드는 병원장, 행정 부원장, 적정진료관리실장, 간호부장, 관리부장이 참석하였으며, 3A 병동과 심뇌혈관조영실을 방문하여 안전한 시술을 위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 수행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리더십 워크라운드 실시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안전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질향상팀 김혜원 주임간호사



가롤로 퀴즈

■ 아래의 퀴즈를 풀어주세요. 정답은 이번호 병원보 속에 있습니다.

정답자 5명을 추첨하여 뚜레쥬르 교환권(1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직원식당에 마련된 응모함에 매월 말일까지 넣어주세요.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9월 10일 지역 주민의 노인성·중증 질환 예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어디인가?(10글자)
2. 9월 17일 새로 이전 개소한 뇌졸중집중치료실과 심혈관중환자실의 환자 쾌유를 위해 거행한 행사는 무엇인가?(3글자)
3. 우리 병원은 9월 11일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유행성 ○○○ 위기 대응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① 재활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알봇플러스(R-BoT plus)’
②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급성심근경색증의 증상과 대처법
③ 익명의 기업가,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④ 다빈치 SP 로봇, 담낭 질환 치료의 선택지 넓힌다

10월호 가롤로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수신: 홍보팀

소속:

직종:

성명:

직통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및 코너는?

독자의 목소리(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 제철 음식 먹고 면역력 키우세요!



‘제철 음식’은 단어 그대로 제철에 나는 음식을 말합니다. 재배 시기, 산란 시기 등에 의해 정해지는 제철 식품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평상시에 비해 좋습니다. 또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 몸도 그 계절에 맞게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식재료를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제철음식을 높게 평가하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1. 가을 해산물

(1) 전어

가을철에 지방이 많고, 살이 올라 맛이 최고라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 전어는 뼈가 부드러워 뼈째 썰어 먹기가 좋고, 지방이 많고 살이 오른 10월의 전어는 고소함이 최고라 구이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로 입맛을 잃기 쉬운 가을철 고소한 전어구이는 식욕을 돋워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2) 대하

가을철 대하는 맛이 달고 담백하며 쫄득한 맛을 냅니다. 타우린, 키토산,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은 높이고,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축적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3) 꽃게

봄에는 암꽃게가 알이 차는 시기라면 가을에는 수꽃게가 살이 차는 시기입니다. 암꽃게와 달리 살이 딱 차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제격입니다.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키틴 성분은 체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 가을 과일

(1) 감

가을철이 제철인 단감은 비타민 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씹는 식감이 좋고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홍시, 감을 말린 곱감 등 가을부터 겨울까지 다양한 맛과 식감으로 자주 접하는 과일입니다.

(2) 무화과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피신이 풍부해 후식으로 먹으면 소화 흡수를 돕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 장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다만, 껍질이 얇아 저장성이 약하므로 먹는 시기

가 짧고 건과일이나 잼의 형태로 가공하여 많이 먹습니다.

(3) 배

수분이 많아 시원하면서 달콤한 맛이 일품인 배도 가을이 제철입니다. 배는 다른 과일에 비해 기관지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유명한데,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가래를 없애 주고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고기 양념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3. 가을채소

(1) 무

가을철 무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좋아 요리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2) 송이버섯

정해진 가격이 없으며 산지,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귀한 버섯으로 알려진 송이버섯도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갓이 퍼지지 않고 단단한 원통형을 제일 특등급으로 알아준다고 합니다. 수분이 빠질수록 송이 고유의 향이 열어지므로 가급적 채취 후 바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양팀 김진아 영양사

337호

9월

가을로퀴즈정답 & 당첨자(5명)

이유라 | 감염관리팀 정지연 | 인공신장실
소은서 | 3A 병동 김은영 | 의무기록팀
박세은 | 8A 병동

* 이번 달 퀴즈를 추천한 부서는 재무경리팀입니다.

1.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온 우리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8월 23일로 지정 몇 주년을 맞이했는가? **10주년**
2. 1952년 아서 부히스 박사가 최초의 인공혈관 제작에 활용한 합성 섬유(천)는 무엇인가? **나일론**
3. 우리 병원은 8월 26일 별관 성심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5곳을 초청해 어린이 환경 **인형극**을 개최했다.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① 뜨개질 동아리 ‘털뭉치’, 책갈피 판매 수익금 50만 원 기부
② 지역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③ 기저귀 발진약
④ 심혈관중환자실 축복식



이달의 기부 천사

익명의 기업가,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지난 10월 1일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가 지역 의료 발전과 취약계층 치료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는 “이 지역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큰 병원이 있어 감사하다”며 “지역의 의료 발전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해달라”는 말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했다.

평소 지역 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져온 그는 본인의 인적 사항이 밝혀지는 것을 한사코 사양하며 익명으로 뜻을 전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전해진 이번 기부는 지역 사회에 잔잔한 감동과 온기를 전하고 있다.



복음 묵상 목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아버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도 힘이 듭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이 자꾸 흩어지고, 여러 고민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루카복음 11장에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과 오래 함께한 제자도 기도를 배워야 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믿음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원래 평생 배워 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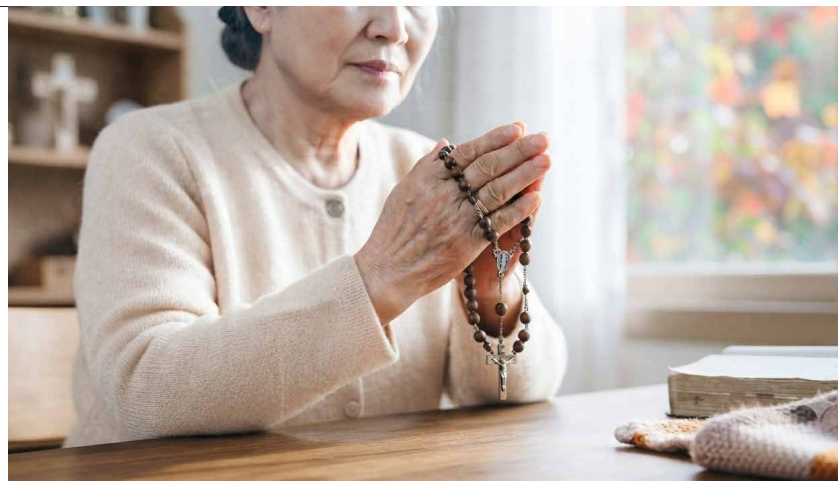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길고 어려운 기도문을 내주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에 우리 기도의 전부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심판관이 아니라, 아픈 자녀의 침상 곁에 앉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열이 오르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저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느님께서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만 청하라고 하십니다. 내일의 검사 결과, 다음 달의 치료, 앞으로의 걱정을 오늘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느님은 오늘의 양식을 오늘 주십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 아프다 보면 지난날이 자꾸 떠오릅니다. 미안했던 일, 풀지 못한 원망,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그 모든 것보다 큼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의 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이를 용서할 힘도 얻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병중에는 절망이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소용없는 사람이야.” 하는 우울감입니다. 기도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10월은 전례력으로 목주기도 성월이며 10월 7일은 목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교회는 예로부터 이 목주기도를 자주 바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키우시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끝까지 곁을 지키신 어머니입니다. 목주기도는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삶을 하나씩 되새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랜 세월 신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던 많은 이들이 목주 알을 하나씩 넘기며 기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1571년 10월 7일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성모님의 전구로 여긴 신자들이 감사를 드린 데서 이날이 기념일이 되었고, 교황 레오 13세는 10월을 목주기도 성월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를 더하여, 오늘 우리는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물론 목주기도가 병을 직접 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의료진의 정성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아픈 이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선물임은 분명합니다.

성모송을 천천히 되풀이하는 동안 숨이 고르게 찾아들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통의 신비 안에서 나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 곁에 놓입니다. 겹세마니에서 두려움에 떠신 분,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분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광의 신비는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일러 줍니다. 고통을 이겨내면 그 너머에 부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해 줍니다. 희망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목주기도는 우리에게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10월 기도하기 참 좋은 이달에 목주를 한번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하고 불러 보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그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유촌동성당 주락권(세례자요한) 신부 | 사진: 제미니아이

YouTube

수요강좌 유튜브 보러가기 ▶



성가롤로병원 외래진료 안내



대표전화 061)720-2000, 종합안내 061)720-2500,
방사선 암 치료 061)720-6900, 건강증진센터 061)907-7200~7203

성가롤로병원 발전기금 후원안내



성가롤로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정성으로 불우환자의 지원과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전기금조성위원회와 발전기금 관리규정에 의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기부자님들의 고귀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후원 계좌 I 예금주: (재)천주교가리따스수녀회
광주은행: 700-107-500533 광주은행: 1127-020-225740 농협: 317-0005-2620-81
- 후원문의 I 재무경영팀 ☎ 061)720-6420~1
- 후원 해 주시는 분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병원 발전기금 기부자 (2026.9.1~9.30) 강성일, 고희문, 김상순, 김영진, 김영휴, 김행연, 김현중, 나재형, 박경수, 박종혁, 소망협동조합, 성우메디칼, 엘에스메디칼, 제이앤에스메디칼, 지성메디텍, 최치환, 추태선, 편안한김약국, 호선약품, 효성의의료기, KFTCCMS, 익명 2명, CMS약정자 12명

다빈치 SP 로봇, 담낭 질환 치료의 선택지 넓힌다

담석이나 담낭 용종은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소견 중 하나다. 지켜봐도 되는 경우와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수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외과 성진식 과장에게 답을 들어보았다.

Q. 건강검진에서 담석이 발견되면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석이 있어도 증상이 없다면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식후 오른쪽 윗배나 명치 통증이 반복되거나 담낭염 같은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담낭 용종도 크기와 변화 양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Q.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배를 크게 여는 개복술이 기본이어서 통증과 흉터 부담이 컸습니다. 이후 작은 구멍으로 하는 복강경 수술이 등장했고, 지금은 많은 복부 수술에서 복강경이 개복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수술 로봇을 이용한 단일공 수술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과 성진식 과장



Q. 단일공 수술이 무엇인가요?

단일공 수술은 이름 그대로 구멍 하나, 즉 절개창 하나로 하는 수술입니다. 기존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배꼽에 약 1.5cm, 그 밖에 약 0.5cm 절개를

두 곳에 두고 카메라와 기구를 나눠 넣었습니다. 반면에 단일공 수술은 배꼽에 작은 절개창 하나를 내고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함께 넣어 진행합니다. 다빈치 SP는 단일공 방식에 적합하게 구현한 로봇 수술 장비입니다.

Q. 다빈치 SP로 담낭 수술을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수술 자국이 배꼽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통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술이든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 가능성이 있고, 수술 중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Q. 말씀하신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적으로 절개창이 적어 절개 부위의 신경 손상이나 주변 조직 자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빈치 SP의 10배 확대 3D 영상과 자유로운 관절 기구, 손 떨림 보정 기능이 더해져 체내의 좁은 공간에서도 집도의가 정교하게 수술함으로써 수술 중 미세 혈관이나 조직 손상을 줄이고 회복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술을 결정하기 전, 환자가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일반 복강경 수술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기 전,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의 약관이나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에게 로봇 수술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담낭 염증이 심하거나 주변 조직과 유착이 있는 경우, 이전 복부 수술 병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식후 오른쪽 윗배나 명치 통증이 반복되거나, 건강검진에서 담석이나 담낭 용종을 발견하셨다면 참거나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지켜봐도 되는 경우인지,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지 의사와 환자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수술법을 결정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진료 문의: 외과 061-720-2270



다빈치 SP 로봇